

유태인
02-3770-5571이재형
02-3770-5579김현수
02-3770-5582신연화
02-3770-5721공문주
02-3770-5586이소윤
02-3770-5572황태웅
02-3770-5578

발간일: 11.27 (수)

11.26 (화)	1d	5d	1M
CP 91d	3.530	+0.0	+0.0
CD 91d	3.440	+0.0	+0.0
KTb 3y	2.773	+0.0	-11.6
KTb 5y	2.813	-1.1	-12.4
KTb 10y	2.903	-1.7	-13.3
KTb 20y	2.854	-1.2	-12.2
KTb 30y	2.801	-1.7	-10.7
국민주택 5y	2.998	+0.1	-9.0
한전 3y	3.107	+0.1	-10.8
산금 1y	3.177	-0.1	-3.7
회사 AA-	3.343	+0.1	-11.4
회사 BBB-	9.151	-0.3	-12.3

크레딧 스프레드 변동 추이 (1M)

회사채 등급별 스프레드

		1d	5d	1M
AA-	58	+0.0	+2.0	
A+	90	+0.0	+1.0	
A0	115	+0.0	+0.0	
A-	159	+0.0	+0.0	

여전채 등급별 스프레드

		1d	5d	1M
AA+	46	+0.0	+2.0	
AA	52	+0.0	+2.0	
AA-	62	+1.0	+3.0	
A+	150	+0.0	+0.0	

금융채 회사채 스프레드 추이 (3y, 여전채-회사채)

		1d	5d	1M
AA	-1	-0.0	+0.7	
A+	61	+0.5	-0.1	

국고채 장단기 금리

		1d	5d	1M
10y-3y	13	-1.9	-1.8	

국고 10년, 회사채 3년 스프레드

		1d	5d	1M
10y-3y	-45	-1.9	-3.3	

전일 주요 채권 관련 기사

* 롯데 핵심 상장사 뜯어보니...유동성 경직, 차입 부담 확대

- 롯데케미칼(AA/N)의 회사채에서 기한이익상실(EOD) 사유가 발생하면서 롯데그룹 전반에 대한 신용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
- 시장에서는 그룹 전체가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, 주요 계열사의 유동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차입구조마저 단기화돼 있는 탓에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지적
- 주력 사업인 화학과 유통이 업황 악화로 반등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계열사 매각 등 구조조정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차입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

이데일리(11/26)

* "롯데그룹 가장 걱정인 계열사는 케미칼과 건설"

- 채권 시장 전문가들은 롯데그룹 계열사 중 가장 우려가 높은 곳으로 '롯데케미칼'과 '롯데건설(A+/N)'을 압도적으로 선택
- 롯데그룹의 유동성 위기 해결책으로는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한 계열사 매각 등 자구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
- 한신평은 "영업현금창출력 약화와 이자비용 상승이 2조원에 달하는 회사채의 기한이익상실 원인사유 발생으로 연결된 점은 재무관리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"이라고 지적

이데일리(11/26)

* 롯데 위기설 속 신용등급 버팀목 '유통·식품'

- 앞서 불거진 '12월 위기설'은 롯데그룹이 적극적인 해명에 나서 일단락되는 모양새지만 롯데그룹의 재무구조 개선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
- 시장에서는 그룹의 차입금 부담이 크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현금성자산 및 보유 부동산 처분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
- 다만, 올해 6월 롯데케미칼의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됨에 따라 롯데지주의 신용등급도 연쇄적으로 낮아진 바 있어 추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제기되는 실정

더벨(11/26)

* 5대 은행 발행 채권 '역대 최대'...대출 금리 인상 '부채질'







- 국내 5대 은행이 채권을 발행해 끌어모은 돈이 160조원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남
- 올해 들어서만 100조원 넘게 불어난 대출을 감당하려다 보니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해진 탓으로, 이 과정에서 은행채 발행 금리도 덩달아 뛰고 있음
- 은행채가 채권시장의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기업들의 유동성 확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, 대출 금리 인상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지적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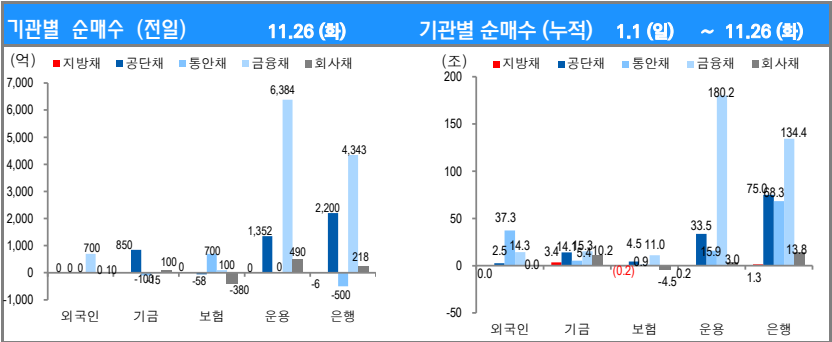
데일리안(11/26)

수요예측											
수요예측일	발행회사	회차	적용등급	발행금액	발행일	만기일	가산 이율	미매각 금액	경쟁률	주관사	비고 (자금사용 목적 등)
2024-11-27	효성화학	15	BBB+	300	2024-12-04	2025-12-04				KB증권/한국투자증	채무상환
예정											
예정											
예정											
예정											
예정											
예정											
예정											
예정											
예정											
예정											

전일자 주요 회사채 발행 정보											(단위: 억원, %)
종목명	발행일	만기일	통화구분	발행액	표면금리	이자유형	공/사모	신용등급	옵션구분	이자지급기간	
씨제이프레스웨이14(신증)	2024-11-26	2054-11-26	KRW	600	5.13	이표채	사모		CALL	3 개월	
보미건설1-1	2024-11-26	2024-11-26	KRW	136		이표채	공모	AAA		3 개월	
코오롱생명과학6CB	2024-11-26	2029-11-26	KRW	120		이표채	사모			3 개월	
에이치엘디앤아이한라146	2024-11-26	2025-11-26	KRW	50	7.10	이표채	사모			3 개월	
보미건설1-2	2024-11-26	2027-11-26	KRW	34	6.00	이표채	사모	BB-		3 개월	

주요 등급 변경											
회사명		변경일	변경등급	직전등급	구분	회사명		변경일	변경 등급	직전등급	구분
1	경기평택항만공사	2024-11-20	AA+	NA	신규	현대자동차	2024-11-04	AAA	AA+	상승	
2	에이션패션	2024-11-13	BBB-	BB+	상승	기아	2024-11-01	AAA	AA+	상승	
3	한화오션	2024-11-11	BBB+	CANC	신규	다올투자증권	2024-10-23	A-	A	하락	

주요 채권 분류별 만기 / 발행 / 순발행					단위: 억원, % 조원(발행잔액)
채권종류	발행	순발행	발행잔액	발행잔액추이 (2024/1/1~)	
국채	9518	+9518	1147.0		
지방채	0	+0	28.1		
공사공단채	2706	(3539)	464.7		
통안증권	8000	+3000	112.5		
금융채	20900	+13200	599.9		
회사채	1025	(55)	418.7		



전일 주요 회사채 거래						(단위: 억원, %, bp)
종 목	만 기	거래금액	수익률	민평수익률	민평대비(bp)	
하나금융지주64	2026-11-25	1,500	3.14	NA	NA	
롯데지주14-2	2025-07-28	1,410	3.83	NA	NA	
호텔신라70-3	2026-04-23	1,380	3.35	NA	NA	
에이치디현대오일뱅크120-3	2029-07-09	1,145	3.26	NA	NA	
현대트랜시스47-1	2026-09-12	906	3.28	NA	NA	
SK이노베이션11-1	2025-07-25	604	3.53	NA	NA	
한화솔루션279-2	2027-01-22	596	3.48	NA	NA	
하나금융지주57-2	2026-01-16	505	3.22	NA	NA	
한국항공우주산업27-1	2026-04-08	504	3.35	NA	NA	

